

신문활용교육(NIE)을 적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분석

안 정 숙(신라대학교 석사)

본 연구목적은 신문활용교육(NIE: Newspaper In Education)이 노인교육에 적용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신문활용을 이용한 노인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이다. 효과측정은 신문활용교육을 이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그리고 우울성향에 나타난 변화를 보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일차적으로 관련 문헌 고찰을 통해 신문활용교육의 개념과 효과를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신문활용교육을 이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프로그램 효과를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로 분석하였다. 양적 평가는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을 선정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 사전-사후검사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질적 평가는 관찰, 기록, 대화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프로그램 실행은 부산의 A종합사회복지관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에서 2005년 3월2일부터 3월 31일까지, 총 26명(실험, 통제집단 각각 13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프로그램은 총 8회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얻어진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활용교육을 이용한 노인교육프로그램이 최초 개발되었다. 현재까지 신문활용교육은 유아,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실시되어 왔으며 그 효과가 보고 된 적은 있으나, 이를 노인에게 적용시킨 연구는 없었다. 신문활용교육(NIE)을 노인대상 교육에 적용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

둘째, 교육실행 후 이루어진 효과 측정에서 교육 참여 노인들의 우울성향, 자아존중감, 생활만족감 등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통제-실험집단의 비교와 실험집단의 사전-사후 통계 결과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들에게서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향상되었고, 우울성향은 감소되었다. 실험 집단의 사후 평가에서 생활만족도의 경우 정서적·경험적 만족도 모두 비슷한 평균값의 상승을 보여 주었고 우울성향에서도 심리적·생리적 우울 모두 평균값이 비슷한 상승을 보여 주었다. 즉 신문활용교육은 노인교육에 효과적인 교육방법이다. 따라서 신문활용교육의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노인특성을 고려한 학습준비와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신문을 수업자료 내지 학습도구로 하는 신문활용교육은 노인교육에 효과가 나타났으므로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훈련된 강사에 의한 전문적이고 체계적 방법으로 노인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법 개발과 효과 검증이 요구된다.